

김영록 지사, “위안부 아픔 기억·올바른 역사인식 확산 앞장”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메시지... 목포서 추모문화제·시민 참여체험 등 기념행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위안부 기림의 날,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 고통받은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린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위안부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것을 기념해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이후 다른 피해자분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역사의 진실과 마주하게 됐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단 6명에 불과하며, 실제 피해자 규모조차 온전히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전남에는 2명(해남·담양)의 피해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되셨다.

김영록 지사는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해방의 기쁨을 되새기는 동시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역사의 상처를 직시해야 할 때”라며 “피해자분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고 역사적 정의가 실현될 때, 비로소 광복의 참된 의미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와 함께 기념행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기념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적 자료 발굴·기록·보존에 노력하고,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이 아픈 역사를 모두와 함께 기억하며, 인권과 평화와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날 목포시 근대역사관 1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일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열어 피해자들의 아픔을 되새기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겼다.

전남도가 주관하고 목포평화위원회(위원장 전성열)주최로 진행된 기념식엔 전남도, 전남도의회, 목포시, 목포시의회,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기림의

레를 시작으로 기념식, 추모문화제와 공동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매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평화와 기림의 나무에 소원 메시지 적기 체험,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선언, 다양한 장르의 추모 공연도 펼쳐졌다. /염선호 기자

광주 서구,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앞장선다

주민소통·협력문화 확산... 전문 강좌로 공동체 역량 강화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 강좌를 선보인다. 서구는 14일 창작농성 팔커뮤니티센터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마을자치(전문)학과 아파트 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개강식에는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아파트 입주민, 관리소장, 마을활동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아파트학교는 주민들이 아파트라는 생활 공간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아파트학교는 오는 9월 4일까지 운영되며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아파트 민주주의’ ▲권명희 울산대 주거환경학과 교

수의 ‘마을자치와 아파트공동체의 이해’ ▲송미숙 은평구 라미공동체 대표의 우수사례 소개 ▲김승수 특목도서관 관장의 ‘우리 아파트의 내일을 상상하다’ ▲박운정 민주주의기술학교 이사장의 ‘우리 손으로 만드는 작은 변화’ 등으로 진행된다.

정인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은 “착한도시 서구를 만들어 나아가고자 사람 뜻을 피는 서구 아파트공동체의 정원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아파트학교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이웃 간 정을 나누고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석우 기자

동구 “댄서 우태한테 댄스 특강 받아보세요”

지역 청소년 대상 댄스 마스터 클래스, 18일부터 모집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오는 9월 13일 미로센터 2층 미로 라운지에서 열리는 2025 미로 청소년 문화예술프로그램 ‘댄스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할 청소년을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아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댄스 마스터 클래스에는 인기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리트 맨 파이트에 출연한 실력과 댄서 ‘우태(WOOTAE)’가 참여해 멘토링 및 참여형 댄스 특강을 펼칠 예정이다. /오철수 기자

댄서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대표 댄서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문화예술 체험이 될 전망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미로센터 알림사항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메일로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본 클래스는 초급자에게는 다소 높은 난이도의 프로그램으로 제출된 영상을 바탕으로 담당자를 선정하며, 클래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당첨자는 9월 3일 개별 안내 문자를 통해 발표한다. /오철수 기자

광주 남구, 19일 ‘비축기지 테러’ 합동훈련 실시

국가 중요시설에 폭발물·드론 타격 등 대비

“대규모 식품 비축기지에 드론을 이용한 폭발물 테러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서둘러 현장으로 출동해 대응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025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의 하나로 오는 19일 송하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아T) 광주 비축기지에서 복합 테러 대응 실전훈련을 실시한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19일 오후 2시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남부경찰서, 남부소방서, 31사단 503여단, 한국전력공사, KT, 민간드론 운용단까지 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훈련 참가자들은 이날 국가 식량안보

핵심 시설에 대한 복합 테러 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에 나서는 역량을 키우고, 민·관·군·경 협력으로 완벽한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탐금질에 나설 예정이다. 훈련 장소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 비축기지는 비상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쌀을 비롯해 콩과 참깨 등 주요 식재료를 최대 3,000톤까지 보관할 수 있는 국가 중요 시설의 하나이다.

남구와 관계기관 관계자들은 비축미 탈취와 방화 시도, 드론 공격에 의한 추가 폭발, 인명 피해 발생 등 복합적 테러 발생 상황을 담은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비축기지 테러 대응 훈련에 나선다. /임채일 기자

광주시, 참전기념탑 건립 예정부지 지정 기념행사

광복 80주년 맞아 상무시민공원에 건립 추진 본격화

방보훈청장, 각 보훈단체 등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세리머니, 참전자 대표곡 제창,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2023년 5월 보훈단체의 건립 요청을 시작으로, 부지 검토와 관련 기관

협의, 타 지역 사례 조사, 행정절차 검토 등을 거쳐 올해 6월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에 건립 예정 부지로 잠정 확정, 현재 부지 동의를 제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강기정 시장은 “참전기념탑은 국가유공

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후세에 그 뜻을 전하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보훈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자질 없이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 참전기념탑 규모와 소요 예산을 확정하고, 기본·실시설계,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원 기자

하고 공헌한 모든 분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답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의 시간, 기억에서 희망으로’를 주제로 창입 거점인 광주역 ‘스테이지(STA-G)’에서 광복80주년 경축식을 개최했다. 항일·민주정신과 촛불로 정의를 지켜온 광주정신, 인공지능(AI)·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정신, 인공지능(AI)·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의 꿈을 함께 담았다.

경축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교육·광복회광주시지부장, 신수정 광주시의회의장, 양국덕 할머니, 오월어머니집 어머니, 광주형 통합돌봄 수행기관, 창업가, 대

학생, 마을활동가 등 시민이 함께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과거 항일·민주정신과 미래의 희망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아 애국가 제창도 특별하게 구성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여가 보류됐다 지난 8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국덕 할머니가 현장에서 직접 애국가 1절을 무반주로 불러 감동을 자아냈다. 2절부터는 오월어머니집 어머니들의 애국가 제창 영상에 맞춰 참석자 전원이 함께했다.

경축식에서는 세대와 분야를 아우른 시민들이 참여한 기념영상 ‘시민의 기억과

희망’이 상영도 눈길을 끌었다. 현장 객석에서는 배우들이 무대와 객석을 오가며 광주 시민의 네 가지 꿈(인공지능과 창업, 복합쇼핑몰, 광주다움 통합돌봄, 민주주의 가치)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만세삼창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대통령표창)이 추서된 고(故) 박일규 애국지사 증손자인 박신욱씨가 선창하고 참석자 전원이 만세를 외쳤다.

강기정 시장은 경축식에 앞서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참전기념탑 예정부지 지정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광주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참배하고 희생자들을 기렸다. /전광훈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이러 역사관의 중요한 콘텐트가 될 고(故) 이금주 회장이 수집한 일제강제동원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참전기념탑 건립에도 속도를 낸다. 강 시장은 “독립운동기념탑 가까이 참전기념탑을 세우려는 것은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과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민주화운동, 나라를 지키려는 참전은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며 “광주는 나라를 위해 희생

교실에서 찾은 희망, 희망을 키우는 광주교육

